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1(土) 12(日)  
☁️ 비 25 / 31°C ☁️ 비 25 / 30°C

**News**

- 亞문화전당 개관 2년연기 ②
- 이주여성 은행서 수모 ③
- 프리미어리그 개막 ⑬

**Jeollado**

- 그 사람-김형수 화백 ⑦

**Entertainment**

- JK김동욱 4집 '낯선천국' ⑧
- 배우들의 변신은 즐겁다 ⑨

**Books**

- 2,600년제국 이스탄불 ⑩
- 예술, 정치를 만나다 ⑪

**Wellbeing**

- 식품 탐구-파 ⑬



8일 남도대학 담양캠퍼스 구내식당에서 미국 원어민 교사들이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양식을 먹는데 필요한 '식탁 매너'를 가르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영어에 자신감 생겼어요”

전남도 초청 美 포클랜드 대학생 강사 '영어체험캠프' 서툰 식사주문 '웃음 꽃'...회화실력 '쑥쑥'

8일 오후 4시, '영어체험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남도대학 담양캠퍼스 구내식당. 양식 메뉴판을 손에 든 원어민 교사 스테파니(여·23)씨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식탁 사이를 빠르게 누비며 학생들로부터 식사 주문을 받느라 여념이 없다.

“Would you like a beef cutlet or a hamburger steak?(비프커틀릿 먹을래, 아니면 햄버그 스테이크?)”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분명한 발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녀에게 곧바로 대답이 돌아온다.

“I want a beef cutlet.(비프커틀릿 주세요)” “I'd like a hamburger steak.(저는 햄버그 스테이크)”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스테파니씨는 “OK, Very good.(좋아, 잘하는데)”을 연발하며 환하게 웃는다.

'식탁 매너'를 주제로 한 이날 영어체험캠프에서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클랜드 주립대학 학생 12명과 전남지역 초등학교 영어교사 12명이 강사로 나서, 메뉴 고르는 법에서부터 포크 쥐는 법, 음식 먹는 법에 이

르기까지 식탁에서 알아야 할 모든 예절을 직접 가르쳤다.

원어민 교사로 나선 미국 대학생들은 이날 식탁예절외에도 요리관, 패션관, 드라마관, 음악관, 과학관 등 남도대학 내에 설치된 15개 체험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며 '직접 현지에 간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전남도 초청을 받아 원어민 교사로 참여한 케이틀린(여·23·공중보건학 전공) 씨는 “처음엔 어색하고 수줍어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가면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영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어휘가 좋아지고, 발음이 유창해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어민 교사인 벤저민(23·행정학 전공)씨는 “미국의 캠프는 자유분방한 편이지만 한국 캠프는 학구적인 분위겨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 120명도 미국에서 건너 온 언니,

오빠들과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나눠보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친구들과 함께 앉아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던 최준홍(13·삼호초교 6)군은 “학교나 학원보다 훨씬 재미있다”며 “원어민 선생님들과 하루종일 직접 얘기를 나누다 보니 회화실력이 빨리 늘고, 영어를 무서워 했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좋아했다.

한지혜(13·신북초교 6학년)양은 “원어민 선생님의 말씀 10개 중 1개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진짜 영어를 듣고 또 외국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번 영어체험캠프는 전남도가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오리건주의 포클랜드주립대학과 자원협정을 체결, 대학생 35명을 원어민 강사로 위촉함으로써 성사됐다.

남도대학 담양캠퍼스를 비롯 해남의 전남학생교육원과 곡성 과학대 등 3곳에 마련된 이번 캠프는 특히 낙도·오지에서 생활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초·중학생 810명을 선발해 무료로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영어체험캠프는 지난날 3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주간 운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이산가족상봉 규모 확대”

2차 남북정상회담서 ... 정부 '뒤틀려 의혹' 일축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기회와 규모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과 관련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뒤틀려' 의혹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뒤틀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0월말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주도를 답방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산가족은 남북간 중요한 인도적 문제이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000년 정상회담과는 달리 2005년 12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남북간 합의 문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토록 돼있고 재정부담이 수반될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친북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2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데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10월말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주도를 답방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설이 있다”며 “제주도 답방이 대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10일 판문점에서 북·미군 대령급 접촉을 갖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포스렌즈(UFL)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이날 미군측에 전달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강행되는 조건에서 이에 대응한 위력한 타격 수단을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UFL 연습이 남북정상회담 기간과 겹치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변경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연합뉴스

## 미국發 '신용경색 쇼크' 주가 폭락

코스피지수 80P 급락

미국의 서브 프라이머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 대출) 부실 문제로 불거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10일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촉발된 신용경색 위기가 유럽으로 전면 확산했다는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80.19포인트(4.20%) 급락한 1,828.49로 마감했다. 이는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3번째이자 하락률 측면에선 3년2개월만에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도 24.28포인트(2.99%) 하락한 788.41로 장을 마쳤다. 일본(-2.37%)과 대만(-2.74%) 증시도 2% 이상 떨어졌다.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가 2%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자 아시아 증시의 투자심리도 공포에 휩싸였다.

국내의 증시 급락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9.0원 급등한 931.9원으로 마감했다.

신용경색이 금융시장을 강타하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서브프라이머 모기지 부실로 유발된 미국과 유럽의 신용위기가 한국시장으로 전염될 지 여부를 논의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인력을 크게 늘리는 한편 거시감독국 등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리고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단계별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CD Entertainment and Artists ACCOMPANY by arrangement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썬츠 내한공연!

**CATS**

2007. 9. 7 (금) ~ 16 (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화~토요일 7시 / 토요일 7시, 9시 / 일요일 2시, 7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NCTV 후원  
무대: 서울예술단  
출발: 광주광역시  
공연문의: 062)220-0541, 1598-0798